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김진태]

안강읍 방울토마토 농가 방문...직원 17명 하엽 정리 등 지원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공=농어촌공사경주지사) 농촌일손돕기 봉사에 나선 공사 임직원들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4월 21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위치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 '행복충전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기철 지사장을 비롯한 경주지사 직원 17명이 참여해 비닐하우스 2동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직원들은 토마토의 생육을 돕기 위해 식물의 오래된 아래 잎을 제거하는 하엽 정리 작업과 불필요한 결순을 따내는 측지 작업을 도우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지원 대상 농가 관계자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영농기에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세심하게 작업을 도와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기철 지사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영농 도우미 활동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지역 복지시설 지원, 재해 복구 활동 등 매년 다양한 '농산어촌 행복충전 활동'을 이어가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